

주말 쇼핑

남성 속옷

기분 전환용 '꽃무늬 망사' 어떨까

남성들의 속옷이 눈부시다. 남성 속옷의 오랜 스타일이던 무미 건조함은 이제 사라졌다. 대신 원색이나 형광색 등 과감한 색상에도 호피나 꽃, 하트 등 화려한 무늬가 새겨졌다. 뒷면이 흰하게 비치는 망사팬티에 레이스, 큐빅, 펄 등 소재는 여성 속옷 못지 않다. 첨단 소재 등을 이용한 기능성 속옷도 많아졌다.

쇼핑 전문가들은 기분 전환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화려한 속옷을, 살이 찢 30~40대에겐 보정용 속옷을 권한다.



1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7층 속옷 매장에서 한 여성고객이 남성용 속옷을 살펴보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살 찢 30~40대 보정용 인기

◇갖가지 기능성 가미=걸을 때 근육을 자극하고 복부를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착용했을 경우 몸매 보정 효과가 있는 기능성 속옷이 나왔다.

비비안이 출시한 남성용 기능성 팬티 '트레노 엑스파워'(4만원대)는 허벅지 부분에 고밀도 고탄성섬유를 X자 구조로 배치해 속옷을 입고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폼팩스 원단을 사용해 땀 흡수와 건조가 빨라 등산이나 골프 등 운동을 즐기는 남성들이 주로 찾고 있다.

탄력소재로 이루어진 남성용 드로어즈(트렁크 스타일)이면서도 피부에 달라붙는 팬티의 경우 합업 기능과 함께 활동시 허벅지 살이 출렁이거나 앉을 때 허벅지 살이 흐르는 것을 잡아준다.

패션에 관심 있는 남성들이 늘면서 여성 속옷에 주로 사용됐던 '헬원단'을 사용한 속옷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헬원단'은 분제선이 겹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고 옷맵시를 돋보이게 하기 효과가 있어 타이탄 바지를 입을 때 속옷이 겹웃에 표시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실루엣 연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는 복부를 조여주는 니퍼(5만9천원) 등 남성용 보정 속옷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핑크·레몬·그린 등 컬러 선호

◇여성화 현상 뚜렷="꽃미남" 열풍으로 남성 속옷에도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키니진 등 몸매를 강조하는 경향 때문에 겉옷에 속옷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골반바지가 대세를 이루면서 여성용 속옷처럼 허리선이 낮은 팬티나 아예 밴드를 드러내놓는 아웃밴드 스타일의 드로어즈 팬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올 봄에는 핑크, 레몬, 그린 등 채도가 높거나 화사한 파스텔 계열의 속옷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골드나 실버 등 메달리한 컬러를 속옷에 접목시켜 장식 효과를 냈다.

기존의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 정도로 한정돼 있던 패턴은 색시한 느낌의 호피무늬, 화려한 꽃무늬나 귀여운 하트무늬 등으로 다양하다.

캘빈클라인(3만~5만원대), 비비안 트레노(3만~5만원대), 엘르(2만~3만원대), 보디가드(1만원대) 등의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비비안 김은화 매니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화려하고 밝은 컬러의 속옷으로 기분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패션에 민감한 20~30대라면 아웃밴드나 드로어즈 팬티를, 살이 찢 30~40대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보정용 속옷을 입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건설·조선 2차 구조조정 심사 돌입

전국 74개사 중 광주·전남 17곳 포함

건설·조선 74개사가 2차 구조조정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업체는 17개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들이 채권단의 목석가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차 구조조정에서는 1차때보다 퇴출 및 워크아웃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업체들이 실제 퇴출과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역경제 파장이 우려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차 구조조정 심사대상 업체는 건설사 70개, 조선사 4개 등 모두 74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사의 경우 시공능력 101~300위이면서 지난 1월말 기준으로 금융권 신용공여액(대출) 50억원이상 업체가 대상이 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건설사 15개와 조선사 2개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74개 대상업체의 22.9%를 차지하는 것으로 타

역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주채권 은행별로는 농협이 15개사로 가장 많았고, 국민(14개사), 우리(13개사), 신한(8개사), 광주(7개사), 하나·외환·기업·경남은행이 각각 3개사 등이었다.

지방은행에서 광주은행이 주채권 은행을 맡은 기업들이 가장 많았는데 지역 기업들이 대상에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광주은행이 심사를 맡은 7개사 가운데 경남의 조선사를 제외한 6개사(건설 5개사, 조선 1개사)가 광주·전남지역 기업이다.

은행들은 확정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예비심사에 착수한 후 심사결과를 신용위험 평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으로, 개별 업체에 대한 A~D등급 판정은 이르면 24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인 C, D등급에 포함될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정부가 과거 1차 평가 때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를 주문하고 있어서다. 1차 때보다 C, D등급 판정 기업수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장필수·김지을기자 bungy@

C&D 채권유예 연장 요청

C&D종업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종료일 하루 앞둔 12일 유예기간을 2~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C&D종업은 "워크아웃 종료시 지급불능 상태로 간주돼 선주사들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화재보험이 제3자 매각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채권 규모는 약 400억원이다. 메리츠화재는 이미 지난달 제3자 매각 추진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



롯데백화점- KIA타이거즈 업무제휴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KIA타이거즈는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내방동 KIA 구단 사무실에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월별 우수 선수 시상·경품 등을 위한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협찬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연합뉴스

가입자별 위험도 평가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

자동차보험 가입자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개발원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 유형별로 손해율을 분석해 위험도를 산출하는 계약자 위험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미국 ISO(손해보험 요율산출기관) 분석 체계와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평가 방식 등을 분석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가입자 유형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동 103-1 (062) 227-9940
총장점: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동 103-1 (062) 227-9970

국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100% 합격 보장!

계좌제/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

가족사랑 간호전문학원

945-7125~7

광주원광은행

신입 비과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광주원광은행